

2025년 9월 9일 (화요일) 배포 12시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 3쪽	자료 : 3쪽	문의(실무부서)
관련 사이트 :		전화번호

‘흥부자’ 박서진X승희, 알고 보니 같은 출신?!

- ‘전국노래자랑’이 낳은 흥남매! 박서진X승희 텐션 大폭발 예고!



(제공 = 제뉴어리코퍼레이션)

KBS 2TV <긴머리 휘날리며>의 첫 M지니(MZ+지니)로 등장한 ‘흥남매’ 박서진과 오마이걸 승희가 뜻밖의 인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박서진과 승희는 데뷔 일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둘의 ‘출신’이 같다는 특별한 공통점이 밝혀졌는데. 박서진은 13세에 ‘삼천포의 남자 장윤정’으로, 승희는 11세에 ‘트로트 공주’로 KBS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올랐던 것.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긴머리 휘날리며>를 통해 ‘흥남매’로 재회한 것에 남다른 소감을 밝혔고, 넘치는 텐션과 입담으로 서로 간의 케미 뿐 아니라 대선배인 긴머리즈까지 휘어잡는 당찬 면모로 웃음을 선사했다는 후문.

‘흥남매’ 케미 서진&승희, 그리고 ‘찐형제’ 케미를 자랑하는 긴머리즈! 웃음과 감동을 모두 담은 이들의 특별한 여정은 오는 9월 10일(수) 밤 9시 50분 KBS 2TV <긴머리 휘날리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전문가’ 김태원 · 박서진, 각기 다른 병원 전문(?)

매일 리즈 갱신 중(?) 박서진, ‘1억짜리 완성형 외모’ 고백



(제공 = 제뉴어리코퍼레이션)

가수 박서진이 KBS 2TV <긴머리 휘날리며>에 첫 게스트로 합류해 거침없는 입담과 자폭 개그로 ‘긴머리즈’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로커 4인방 ‘긴머리즈’와 함께 여행을 떠날 ‘M지니(MZ+지니)’로 합류한 박서진은 긴머리즈와의 첫 만남에서 악수를 청한 김태원에게 초면이 아님을 밝히면서, “뵈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그렇다”라며 너스레를 떨어 성형 사실을 자연스럽게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한편, 과거 방송에서 약 1억 원을 들여 성형했다고 밝혔던 박서진은 이날 역시 ‘셀프 디스’를 서슴지 않았고 첫 만남의 어색함 속 “병원 좀 왔다 갔다 하느라”라고 덧붙이며 분위기를 주도하자, 박완규가 “병원은 김태원 전문”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태원은 “내 앞에서 병원 얘기하지 마”라며 썰기를 박아 건강 병원 vs 미용 병원이라는 의외의 주제로 티키타카 케미를 선보였다.

뜻밖의 병원(?) 고백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긴머리즈 여행 둘째 날의 문을 연 박서진의 활약상은 9월 10일(수) 밤 9시 50분 KBS 2TV <긴머리 휘날리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카리스마 로커 김태원, 가방 속 반전 아이템

- 매일 리즈 갱신 중(?) 박서진, '1억짜리 완성형 외모' 고백



(제공 = 제뉴어리코퍼레이션)

데뷔 40년 차를 맞이한 '전설의 카리스마 로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이 가방에 늘 소지하는 '찐 애정템'을 공개했다.

김태원은 후배 가수 박서진과 오마이걸 승희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내며, 마치 손주를 챙기는 할머니의 모습처럼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선물을 건네 훈훈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어 밝혀진 선물의 정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 아이템’이었고, 선물을 받은 박서진과 승희 역시 뜻밖의 선물에 “취향 저격”이라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는 후문.

세대 차를 넘어선 공감과 케미, 그리고 선물의 정체는 오는 9월 10일(수) 밤 9시 50분 KBS 2TV <긴머리 휘날리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